

2. 말씀 앞에 서보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4: 1-14

1. 산발앗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려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끝 무너지리라 하더라
4. 우리 하나님이며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7. 산발앗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 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 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 그 원수들의 곤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3.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어제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부흥의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입으므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고, 민족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에 왕은 호의를 베풀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늘 그렇습니다. 꿈이 있으면 꿈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꿈을 가로막는, 부흥의 비전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을 어떻게 ‘디딤돌’로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한 모든 상황이 느헤미야 2장 17-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의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미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
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이 그냥 뎅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7.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
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계속해서 성벽의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의 이름은 2
장 10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케 하려는 사람이 됐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랏이 누구일까요?

성경이 아닌 고대 책자인 엘레판틴 파피루스에 의하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라는 이름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들라야와 셀레마야라는 이름의 합성어로 ‘야웨’라는 이름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자들, 집요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가로막는 자들이 바로 교인을 지칭하는
자들입니다.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들,
그리고 그에게는 도비야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더욱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아라비아, 암몬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적들의 방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이
루어 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비웃는 자들에 대하여. . .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비웃는 자들”입니다.

4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끝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여 비웃었다”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실제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하찮게 여겨서 비웃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위기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한 일전 야구 월드컵을 앞두고 이치로라는 선수가, “앞으로 30년 동안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비웃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교만 앞에서, 구대성 선수는 “일본 선수는 절대로 자신의 공을 치지 못한다”

박찬호 선수는 “일본 만은 꼭 이기고 싶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해설하는 하일성씨에 의하면 그런 일본 선수들의 발언은 한국 야구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비웃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역사를 비웃을 때, 비웃음을 띠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운 것은 산발랏 보다도 그의 부하 도비야입니다. 아주 깐죽거리면서 조롱하지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말입니다.

깐죽거리는 말은 참 기분이 나쁘죠? 그래도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성벽인데, 어떻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는 사실을 왜곡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떠는 사단의 세력들이 비웃으며 여러분들을 조롱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미약하다는 말은 ‘시들 어버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일에 지쳐

시들어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기도한다고 하면서 네 모습이 오히려 초라해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 집구석이 잘 돌아가나 보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4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며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비웃음을 당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중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사방을 뒤졌으나 찾을 길이 없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모든 불을 끄고 조용히 있어보자고 했습니다.

정말 얼마 안 있어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계는 주위 환경이 조용해지자 구석진 바닥에서 자신을 주인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도 조용히 있어보렴.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매우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성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 놓은 일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자 이제는 더욱 강한 방해 전략을 가지고 옵니다. 8절 말씀,

8.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 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더 강하게 방해하자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만나교회 담임목사가 되어 처음 목회를 시작하던 때, 문제가 그렇게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보다는 늘 필요와 열망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때, 저의 마음에는 늘 다음세대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라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빛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교육관 시설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주중에 교회에 썰렁하게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가 매일 교회를 오고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시에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일이 바로 1층에 카페 파구스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꿈을 가로막는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과 열망을 앞서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걸림돌’이 생기면 피해가거나 더 이상 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저를 위로하고 권면하더군요. “목사님! 계속하세요. 열정이 꺾이지 않도록 하세요!”
사실 무서운 것은 물리적인 방해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상태에서 사단의 세력이 무력으로 우리를 찾아와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 부흥을 꿈꾸며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던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 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며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무력으로 쳐들어 올지 모른다는 것,
또 하나는 잘못된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과 더불어 모반하여 왕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문입니까? 당시 강대국 바사에 대항하여 모반을 일으키다니요.
그런 소문이 알려지고 바사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온 민족이 멸절을 당할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6장 6절,
그 곳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여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6장 9절을 보세요,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러한 적들의 방해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대처 방법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4절에 그 방법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

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산발랏과 이방 족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고, 믿음과 율례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 전략을 짰습니다.

하나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적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방비 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였고,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일할 때, 일하지 않는 백성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과 전략을 주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행하는 지혜와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내가 하는 일입니다. 단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많은 헛소문들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일일이 대항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자만이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라는 영어 단어 ‘faith’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F - Forsaking

A - All

I - I

T - Take

H - Him

이 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Forsaking all, I take Him.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되는 적들의 방해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헛소문으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들을 통해, 때로는 자신을 죽이려는 계략을 직면하면서 말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강아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를 헤매고 다녔는지, 주인이 없는 이 강아지는 초췌하고 불품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더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

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를 누군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에는 이 강아지의 신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왕의 소유라는 것이었습니다.

“belong to the king” 이것이 그 강아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강아지를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초라하게 이 동네까지 흘러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이 강아지를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는 곧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 절름발이 되었던 ‘므비보셋’을 돌보는 장면입니다.

새롭게 왕이 된 다윗이 이전 왕의 후손을 찾았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자, 그는 두려워 떨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하 9장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므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폐족이 된 왕의 후손으로 황량한 곳 ‘로드발’에서 불구가 된 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다윗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주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애들을 보면, 종종 ‘죽은 개’와 같이 하찮게 여겨지는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않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찾아오셔도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두려워 떨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전이 주어지고, 소명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여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을 가로막고, 여러분들을 비웃는 세력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대응하시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왕이신 당신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순간부터 어떤 자들도 나를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림 받게 하여 주십시오.